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 특구 기대

익산시, 전북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접수... 올 상반기 내 지정 발표

익산에 국내 대장급 바이오 기업들이 동지를 틀며 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더해 최근 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레드바이오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레드진'과 '제이비케이랩'이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의 장기를 재현하는 오가노이드(유사 장기) 개발 기업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출기세포를 배양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동물실험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레드진'은 자체 기술로 인간과 반려견의 세포 기반 배양 적혈구를 개발한 바이오 기업이다. 유전자 교정과 출기세포 배양기술로 인공혈액을 개

발하고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인간과 반려견 등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비케이랩'은 건강기능·보조식품, 의약품원료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바이오 분야 대표기업이다. 제이비케이랩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단지 6만 6,000㎡ 부지에 2028년까지 총 1,000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레드바이오는 생명공학이 의학·약학 분야에 응용된 개념이다. 신약 개발이나 출기세포 관련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비하는 필수산업인만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에 대응할 국내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특화단지 공모는 지난 2월 29일 접수를 시작으로 검토·평가·심의 의결 과정을 거

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오특화단지 입주 기업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규제 특례와 더불어 기술 개발, 수출 촉진, 세제 혜택 등 포괄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유치전에 뛰어든 전국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익산과 전주, 정읍이 한 권역으로 묶였다.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 첨단바이오 생산지, 전주는 오가노이드 기반 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 지구,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 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관련 기업과 연구소의 투자유치 등 협력 체계 강화에 행정력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일정한 휴게공간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집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익산시 서부권역에 추가로 마련된다.

“지친 몸 잠시 쉬어가세요”

익산시, 서부권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조성... 법률 등 심리 서비스도

일정한 휴게공간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집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익산시 서부권역에 추가로 마련된다.

익산시는 2024년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익산시 모현동에 올 상반기 안으로 서부권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된다. 2021년 전북 최초로 어양동에 문을 연 동부권 쉼터에 이은 두번째 공간이다.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이 겨울에는 인 몸을 녹이고 여름에는 땀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다. 내부에는 냉·난방기를 비롯해 휴대용 충전기, 인바자, 커피 자판기, 컴퓨터,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긴 시간 야외 근무로 인한 피로를 부담없이 풀기 제 쉼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대

리운전·퀵 서비스·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 가스 검침원 방문 판매원 등 정해진 사무공간이나 휴게공간이 없이 이동하며 근무하는 이들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하며 익산에도 이동노동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에는 지난해 기준 9,0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앞으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상담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현용 익산시장은 “도내 최초로 만들어진 익산 동부권 이동노동자 쉼터가 많은 호평을 받아 이번에 서부권에도 추가로 조성하게 됐다”며 “이번 여름에는 이동노동자들이 길 위가 아닌 쉼터에서 더위로 피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 불편 해소하는 적극행정에 임해야”

환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신축 화장실 문제 발생시 보완해야”

군산시의회 환경봉 의원은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11. 사용할 수 없는 신축 화장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알고 급하게 뛰어왔는데 지금 짊어졌으니 화장실 빨리 열어달라는 내용”이라며 “4평짜리 화장실을 둘러싼 이 두 가지 민원에 군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라고 했다.

또한 “군산시 산립복지과는 신축하여 완공된지 5개월 후인 지난 2월 28일 나원동 주민센터에서 문 닫힌 화장실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며 “화장실 옆에 위치한 내원암 스님도 참석해 내원암은 월명공원 이용객들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내원암 화장실 이용으로 지난 30년간 힘들었고, 공원 등산로 출입구 앞에 공중 화장실 설치를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립복지과 직원 설명에 의하면 급변 신축 화장실은 기존 정화조 방식과 달리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 방식이라 냄새 걱정은 없고 인근 연립 거실에서 보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출입구에 가림막을 설치, 조경 식재 등 미관을 보완하겠다고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며 “2023년 2월, 화장실 신축을 시작하여 8개월에 걸쳐 5천4백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친 말뚝 화장실을 앞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보강공사를 거친 후에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축한 화장실에 전기만 연결하면 당장이라도 사용 가능한 것을 완공 후 1년 아니면 2년 후에 사용해야 한다”며 “지난 2023년 2월 신축 당시에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 벌써 사용하고 있을 공중화장실인데 화장실 개방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두 가지의 민원, 화장실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도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도 모두 피해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전역에는 공중 화장실이 114개가 있는데 이중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은 60개에 이른다”며 “몇몇 시민들이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 60개 화장실을 모두 철거를 해야 한다. 화장실을 신축했다면 개방해서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을 해야지 폐쇄하고서 민원이 해결되면 개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환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민원 대처 방식 미흡과 군산시 직원들의 적극 행정 부족, 무엇보다 밀접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과 화장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부송4지구 사업 연말 준공 목표 가속화

익산시가 부송4지구 내 지장건축물 철거를 모두 완료하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지장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완료하고 이달 지장건축물 철거를 마쳤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조성된 토지를 기존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해 개발이익 등을 되돌려 주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29만㎡ 부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그간 지장건축물 소유주와의 협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기업 시기 선택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군산시가 올해 60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이중 군산시 자체적으로 44개 법인을 조사하고 16개 법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단, 조사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중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지원(감면 등)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 진행할 것이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의 부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시기를 법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때도 과도한 요구는 지양하고,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창업센터, 넥스트펀딩 스케일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창업센터에서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는 군산 창업가·에비 창업가들을 위한 넥스트펀딩 스케일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창업 자금 마련 대부분을 클라우드 펀딩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클라우드 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 개인, 단체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 펀딩의 경우, 은행 대출이나 투자자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여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를 위한 마케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창업센터가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업이 바로 넥스트펀딩 스케일업. 창업가들이 보다 쉽게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펀딩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